

지역 소식통

고창군, 전북 모범납세자
도지사 표창장 등 전달

고창군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개인 8명에게 전라북도 감사패를, 이중 공적이 가장 큰 1명(이석주)에게는 표창장을 전달했다.

전북 모범납세자는 개인기준 지방세 연평균 납부액이 400만 원 이상이다.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매년 3건 이상 납부하고 10만원 이상 체납사실이 없어야 한다. 납세 규모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적이 큰 순서대로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모범납세자 8명은 1년간 농협, 전북은행의 예금금리 우대, 대출금리 인하, 환율적용 우대, 금융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혜택과 전라북도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공시설(전북국제양궁장, 전북도립미술관 등) 이용료 감면이나 면제 혜택이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신 모범납세자에게 감사드립니다"며 "납세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추진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안군 관내에 소재한 2022년도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지원금액은 최대 100만원(2022년 카드매출액의 0.5%)까지 지원한다.

제외업종은 한식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병원 및 약국 등 전문직종, 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등이 있다.

지원받고자하는 소상공인은 7월 3일부터 9월 1일까지 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자격, 매출액 등을 검토한 뒤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

심덕섭 고창군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세계보물 보유 도시의 자긍심” 포부 밝혀

심덕섭 고창군수는 3일 오전 취임 1주년 ‘직원소통의날’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보물 7가지를 보유한 국내 유일 도시의 자긍심을 높이며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심 군수는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온 초대형 공모선정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세계기독교유산의 연타석 흡연으로 ‘이기는 습관’이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정부부처는 물론, 세계 각국까지 감동시키고 있다는 것.



심 군수는 지난 1년의 7대 성과로 △터미널도시재생혁신지구 선정 △호남권드론통합지원센터 유치 △용평리조트 3500억원 투자협약 △농촌협약·농촌관광스타마을 공모 선정 △세계기독교유산(고창무장포고문 등) 등 재 △신활력산업단지 주지택 투자협약 △법정 문화도시 선정 등을 꼽았다.

앞서 민선 8기 군민만족도 조사(4월 13~14일, 원지코리언설빙, 군민 500명 대상, 95%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4%)에선 군민 4명 중 3명이 심덕섭 고창군정에 만족해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공정 이유로는 ‘활활한 소통문화’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이는 심 군수의 주말마다 찾아가는 현장행정과 각종 읍·면장을 비롯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업홍보와 설명회가 큰 효과를

/고창=김영식 기자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만들어 달라”

이학수 정읍시장, “보조금 투명·공정·계획대로 지급 관리감독 철저” 강조

이학수 정읍시장이 3일 영상 간담회의를 주재하고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시민을 위해 일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인사병행 이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 업무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민원인을 상대하는 부서서는 인수인계에 더욱 신경 써 시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소통위원회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용해 시민들의 의견을 귀



답아 듣는 등 시민들과의 소통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버스정류장, 관광안내관 점검 등 시민생활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과 관광안내관 등을 정비해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노후화된 시설물은 교체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역대 수상자 소통간담회 개최

부안군은 7월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부안군민대상 역대수상자 39명을 초청해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안군민대상은 지역사회발전에 앞장서 군민의 명예를 높이고 부안군 발전에 공적이 큰 사람에게 수여하는 부안군 최고 권위의 상으로 총 8개 분야(효열, 산업, 공익, 교육, 문화, 체육, 애향, 명예군민)에서 각 분야별 1명씩

을 매년 선발한다.

부안군민대상은 1979년에 ‘군민의장’으로 최초 시행돼 ‘뜨뜨군민대상’을 거쳐 현재 ‘부안군민대상’으로 수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83명의 수상자를 선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8기 1주년을 맞아 부안군을 빛낸 역대 부안군민대상 수상자들의 선행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군

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역대 수상자 소개에 이어 군정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자유토론 등이 진행됐다.

이날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앞장서시는 수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지에 대한 예우를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의 대표 물놀이시설인 칠보 물테마유원지 물놀이장이 오는 8일부터 이틀간 시범개장한다.

“안전관리와 위생관리에 최선을”

정읍 칠보 물테마유원지 8~9 시범개장 후 15~8월 20일 본격 운영

정읍의 대표 물놀이시설인 칠보 물테마유원지 물놀이장이 오는 8일부터 이틀간 시범개장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시설보수를 마무리하고 안전성 검사까지 마치는 등 이용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완료했다.

칠보면 무성리 부지에 조성된 물테마유원지는 물테마 전시관을 비롯해 물놀이장, 인공폭포, 생태공원 등을 갖추고 있어 정읍시민 뿐만 아니라 전주와 광주 등 지역에서 매년 3만 명이상의 피서객이 몰리고 있다.

물놀이장에는 2030㎡ 면적의 어린이 풀장과 유아풀장이 설치돼 있고, 워터터널, 워터스프레이, 바디슬라이드 등 각종 놀이시설도 갖추고 있다.

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

원과 응급구조요원을 상시 배치할 방침이다.

물놀이장은 오는 8일과 9일 이틀간 주말에 시범개장한 이후 이달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34일간 본격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이용요금은 어린이 4000원, 청소년(13~18세) 5000원, 성인 6000원이다. 정읍시민은 1명 당 2000원 할인되며 20명 이상 단체는 20% 감면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무더위를 맞아 칠보 물테마유원지를 찾는 피서객들에게 편안하고 인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신규업소 모집

정읍시가 지역 물가 안정과 소비자 이용만족도, 위생 제고를 위해 3일부터 14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일제 정비와 신규업소 모집에 나선다.

내실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으로 소비자 물가 안정을 도모, 물가 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착한가격업소’란 서비스 가격을 지역의 평균 가격 이하로 제공하면서 위생 상태와 친절도가 우수한 업소를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업소다. 정읍시 착한가격업소는 의식업 20개소와 이미용업 4개소 등 총 24개소가 지정돼 있다.

시는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가격·이용만족도·위생·서비스 등을 재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부적격업소

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후 인증표찰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착한가격업소 신규모집도 추진한다. 지정기준은 지역 평균 이하의 가격과 영업장 청결도, 품질·서비스 수준 공공성 기준 등이다.

단,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 3회 이상·100만원 이상 체납 중인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 업소 프랜차이즈업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신규 지정업소와 재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착한가격업소 인증 간판과 전기안전점검, 위생소독, 앞치마, 세계 등 인센티브 물품이 지원되고 상수도요금도 30% 감면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